

5/8/22

설교 제목: 제자들을 모으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 장 35-51 절

요한의 두 제자

-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 (요 1: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절관주** 요 1:29
- (요 1: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 (요 1: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 (요 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 (요 1: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 (요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 (요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과 나dana엘을 부르시다

- (요 1: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요 1: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 (요 1:45)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 (요 1:46) 나dana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요 1:47)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요 1:48) 나dana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 (요 1: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요 1: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 (요 1: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레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앞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 주셔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세레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전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증언을 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1: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레 요한의 제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인 세레 요한으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장차 나타나시는 이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에게 임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연유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자 주저하지 않고 즉각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요 1: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 1: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은 진실로 거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는 동기를 확실히 정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대신 생똥맞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오니이까'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나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 썼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신분이나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들 마음 속에 신앙 고백적 차원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는 '랍비여 아디 계시오니이까'라는 두 제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며 '보라'는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초청하고 구원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 1: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사도 요한이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은 당시 베드로가 열 두 사도의 수반으로서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사도 요한은 안드레가 자신과 더불어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것과 자발적인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다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조상 대대로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후 그 놀라운 소식을 안드레의 형제 시몬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소식을 접한 시몬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곧장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요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눈여겨 본 후 그에 대해 예언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렸지만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게
바'로 불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과격하고 충동적인 성품을 뜻하며 '게바'는 반석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언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게
되자 칼을 뽑아 그중 대제사장 집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시몬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변하여 초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게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십니다.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하층민들이 거주했던 연유로 유다와 예루살렘인들에게 경멸과 조롱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가 메시아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 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유대교를 파기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엿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 만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요 1: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1: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가 율법에 기록된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요 1:45)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같이 율법과 선지서에 근거하여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한 이유는 율법에 충실한 나dana엘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dana엘의 반응은 시큰동합니다.

(요 1:46) 나dana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dana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빈정됩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헬라 문화의 침투가 극심하고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은 경멸과 멸시를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강권합니다.

빌립의 강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오는 나다나엘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요 1: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1: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 마음에 간교함이 없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충실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 하심으로써 이미 그를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크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곤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요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 1: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야곱이 벧엘에서 꾸는 꿈과 연관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재확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28: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영적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매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곧
사닥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된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풀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듯이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